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41

metroseoul.co.kr

metro® Life

제5114호 2023년 1월 26일 목요일

[라이프]
당·칼로리 부담↓
제로 열풍
더 뜨거워진다
L1

[라이프]
"마스크 안녕"
립스틱 등
뷰티업계 화색
L2

"골목 매력에 빠져봐"… 경춘선숲길·용마루길 상권 키운다

서울시, 상권 육성사업 대상지 선정
3년간 30억 투자, 상권발전 지원
경춘선숲길, 지역 생산품 '독립마트'
용마루길, 감성카페 등 청년상권

서울시는 경춘선숲길과 용마루길을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본 사업은 잠재력 있는 골목상권에 3년간 최대 3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상권발전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콘텐츠 개발 등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시는 경춘선숲길로 유입된 청년 상인들이 개발한 제품을 브랜딩해 경쟁력을 높이고, 이 지역 생산제품을 판매하는 '독립마트'를 운영할 예정이다.

경춘선숲길. /서울시

시는 "노원구 소재 경춘선숲길은 인근에 7개 대학교가 자리해 유동인구가 많고 볼거리가 가득한 공릉동 도깨비시장·국수거리 등 상권의 기본기를 갖춘 곳"이라며 "'공릉동 101'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상권 내 이벤트와 할인 행사 소식을 알려 젊은층의 발길을 사로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대상지인 용마루길은 서울 지하철 6호선 효창공원역과 가까운데다가 다른 지역과 비교해 임대료가 저렴해 청년들의 첫 창업지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시는 현재 영업 중인 감성카페와 음식점을 활용해 관광객의 발길을 끌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 용마루길을 시장과 소비자가 함께 만들어나가는 청년상권으로 재탄생시킨다는 목표다. 전통시장과의 상생을 위해 인근 용산용문시장과 연계한 다양한 즐길 거리도 마련할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소비자 인식과 수요 조사를 벌여 브랜딩 방향을 설정할 방침이다. 서울시-자치구-서울신용보증재단이 협업해 상권스토리를 발굴하고, 이를 기반으로 BI(Brand Identity)를 개발해 상징성을 확산할 것이라고 시는 전했다.

또 시는 골목상권을 대표하는 점포(앵커 스토어)를 선정하고, 시민참여 행사와 특색있는 팝업스토어를 운영해 상권의 인지도를 높일 예정이다.

시는 상권의 지속가능성을 판가름 짓는 상인들의 경쟁력 강화에도 힘쓴다. 상권 특성을 반영한 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승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상인 조직화도 지원한다.

1차년도 예산은 상권당 최대 5억원 내외다. 2~3차년도에는 연차별로 최대 10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경춘선숲길과 용마루길 상권에 대한 자원 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각 상권의 특성과 장점을 살린 콘텐츠를 선보인다는 구상이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이번에 선정된 2개 상권은 보행친화 녹색도시, 감성문화도시 같은 시정 운영방향에 부합해 서울의 매력과 품격을 키울 수 있는 잠재력이 풍부하다"며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표모델이 되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텃밭지원, 자원순환… 진일보한 도시 정책

델리, 성전환자 전용 화장실 설치
슈투트가르트, 도시정원 프로젝트
에드먼턴, 관내 '에코스테이션' 운영

'성전환자 전용 화장실 설치, 정원 조성 보조금 지원, 에코스테이션 구축….' 세계 주요 도시와 국가들이 퍼스트무버(선두주자)로서의 위상을 다지기 위해 진일보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에 따르면, 델리 NCT 정부는 성전환자들이 화장실 이용시 겪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트렌스젠더 전용 화장실을 조성키로 했다.

서울연구원은 "성전환자는 보수적인 인도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소외당하는 대상으로 인식돼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인도는 성 정체성에 관계없이 동등한 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고 설명했다.

현재 델리 NCT 정부는 지역 내에 성전환자 전용 화장실 9곳을 제공하는 수준이지만 56개를 건설 중이고, 추가로 6개를 만든다는 계획을 세워 2년 내 트렌스젠더 전용 화장실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독일 슈투트가르트시는 녹색 공간을 늘리기 위해 지난 2019~2022년 도시정원 1차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는 유용작물을 심는 도시정원을 조성·운영하는데 드는 경비를 최대 70%까지 보조하는 사업이다. 시는 도시텃밭 설치에 필요한 재료와 자재(정원용 흙, 씨앗, 모종, 건축자재) 및 부대장비(연장, 정원 의자 등) 구입비를 최대 4000유로까지 지원했다.

캐나다 에드먼턴시는 쓰레기 수거 및 자원 순환 시설인 에코스테이션을 관내 거점별로 운영 중이다. 에코스테이션은 개인 주택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대형 폐기물 배출 빈도가 잦은 캐나다의 생활 방식에 맞춰 대형·화학 폐기물 처리시설을 주택가의 주요 거점에 구축, 주민 편의를 제고하고자 마련된 시설이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디지털 행정서비스에 3703억 투입

메타버스·AI 등 행정에 신기술 접목

서울시가 메타버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신기술을 행정 전반에 접목해 시민 편의와 안전을 강화하고, 디지털 약자를 위한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올해 정보화사업에 3703억원을 투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시는 시민 안전 체험관, 부동산 계약, DDP 메타버스 같은 시민체험 서비스를 확대하는 '메타버스 서울' 2단계 사업에 28억원을 투자한다. 서울 전역 안전 취약지역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하고, 노후 CCTV를 교체하는 사업에는 92억원을 투입한다. 데이터 걱정 없이 누구나 쉽고 빠르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와이파이망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시는 시정 전반에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 같은 신기술을 융합해 한 차원 높은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스마트 업무환경을 조성해 행정 효율을 높이기로 했다.

디지털 포용 정책 사업으로는 ▲어르신의 여가활용과 디지털 교육을 위한 '스마트경로당' 조성 ▲휴머노이드 로봇을 활용한 어르신 '로봇 활용 디지털' 교육 ▲디지털 약자의 정보 활용 여건 개선을 위한 '사랑의 PC' 보급 등이 마련됐다.

/김현정 기자

경기도, 친환경 벼 복합생태농업 단지 조성

지속가능 농업 위해 유기농업 키워
용인·화성 등 7개 시군에 19곳 조성

경기도는 도내 친환경유기농업 재배면적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 등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해 올해 7개 시·군 생산자단체 19곳에 친환경 벼 복합생태농업 실천단지를 조성한다고 25일 밝혔다.

친환경유기농업 재배면적 확대는 민선8기 경기도의 농업분야 핵심 공약으로, 친환경유기농업의 급격한 감소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발굴한 사업이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 미래세대 건강, 생태계의 생물다양성 회복 등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에 초점을 맞췄다.

사업 대상은 용인·화성·평택·김포·양주·포천·연천 등 7개 시군 19개 친환경 벼 생산자단체로, 사업량은 771ha다. 이 가운데 친환경 벼를 신규로 생산하게 된 면적이 102ha다.

도는 35억 원을 투입해 19개 단체에 ▲친환경 벼 종자, 육묘, 개량 물꼬 등 전통적 작부 체계 계승 ▲유박, 바이오차, 친환경제제 등 농업부산물 재순환·재활용 ▲친환경 상토, 왕우렁이, 토양미생물, 논두렁 제초 등 토양 양분 및 환경관리 등을 지원한다.

특히, 시·군 생산자단체별로 둠벙(임시로 용수를 가두어 두는 물 저장고)을 조성해 벼와 메기, 큰징거미새우 등 담수어를 함께 키우는 복합생태농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해 농업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수원(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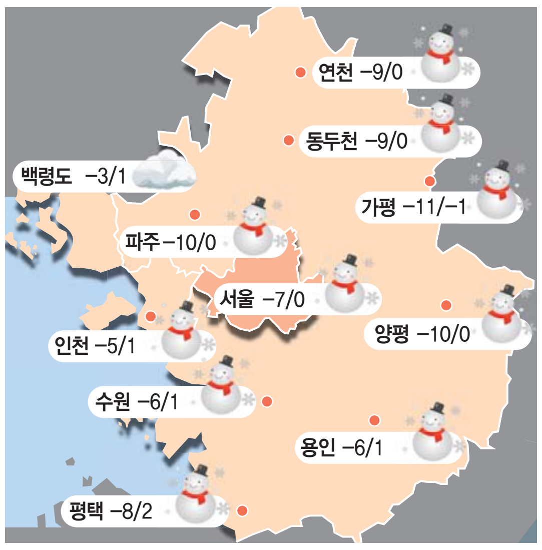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 07:41 | 해짐 / 17:49

1월
26일(木)
음력 : 1월 5일

수도권 날씨
-7 ~ 0℃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버스티비 yap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美 국방부, 우크라전 지원 위해 포탄 생산 500% 늘려
▲바이든, 부채한도 상향 두고 심화하는 대립에 민주당 지도부 만나 /사진 뉴시스

▲독일 2022년 러시아에 수출 45%↓…"제재로 19년 만에 최저"
▲김정은 "주한미군, 중국으로부터 나를 지키는데 필요"

▲일본 후쿠시마현 앞바다서 규모 4.9 지진…원전 이상 없어
▲이스라엘-레바논 국경 긴장…'이'탱크 국경철책 넘어 /사진 뉴시스